

연극학적 상호작용 모델에 근거한 성교육이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의향에 미치는 효과

조 은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여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HIV 감염자 약 6,000만명 중 절반이 15~24세에 감염되었고, 현재 이 연령층에서 AIDS 감염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르고 있다(Kiragu, 2001).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통계에 의하면, 2006년 3월말까지 등록된 우리나라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총 4,021명이며, 그 중 748명이 사망하였다. 신규 감염인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이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52.4%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15~19세의 청소년 감염자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6). 또한 2004년 1~6월 중 성병통계에 따르면, 성병감염 환자 중 여성이 54.7%를 차지하며, 20대가 전체 성병 감염 여성의 70%를 넘고 있다.

콘돔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연령층을 AIDS를 비롯한 성병과 불임 임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선호되는 예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Park과 Han(2003)의 최근 20여 년간 국내 미혼 남성의 콘돔 사용률에 관한 보고에서 첫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이 13-32%에 불과하고, Seo와 Lee(1999)의 미혼 여대생의 성행위에 관한 보고에서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이 22.2%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내 대학생

의 콘돔 사용률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의 콘돔사용에 관한 선행연구(Kang, 2001; Brown, 1984; Campbell, Peplau, & Debro, 1992; Cho, 2004; Helweg-Larsen & Collins, 1994)를 살펴보면, 콘돔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당혹감, 당혹성향, 성교육 경험, 성건강 정보추구 유형,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콘돔사용 의향, 파트너 지지, 그리고 동료의 영향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콘돔사용의 유력한 예측인자로서, 콘돔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성파트너 간,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Helweg-Larsen과 Collins(1994)는 개인의 콘돔사용 및 콘돔사용 의향은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는 콘돔의 신뢰성 및 효과성과 콘돔사용의 성적 쾌락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서적 평가나 신념뿐만 아니라, 콘돔사용자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는 이미지 손상, 그리고 콘돔사용의 협상 및 콘돔 구매 시 경험하는 당혹감에 대한 태도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장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Cho(2004)는 대학생의 콘돔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과거 콘돔사용은 여학생의 경우, 콘돔사용의향과 성교육 수강경험에 의해 유력하게 예측되는 반면, 남학생은 콘돔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 중 콘돔사용 시 성적쾌락에 대한 평가와 성건강정보추구유

* 서라벌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ejc10004@sorabol.ac.kr)

형에 의해 유력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돔사용의향과 관련하여, 여학생은 콘돔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 중 정체성 손상 및 콘돔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에 의해 유력하게 영향을 받는 반면, 남학생은 콘돔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 중 콘돔사용 시 성적 쾌락에 대한 평가와 개인적 기질적 당혹성향, 그리고 콘돔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 중 정체성 손상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콘돔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으로 콘돔사용 협상 및 콘돔구매 등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경험하기 쉬운 당혹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당혹감은 흔히 불쾌하고 유해한 정서로 (Cho & Chung, 2002), 높은 수준의 당혹감 경험에 대한 인식은 콘돔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Dahl, Gorn, & Weinbeg, 1998), 이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연령, 콘돔사용경험, AIDS 지식 등이 보고되고 있다(Park, Lim, & Han, 2003).

콘돔사용행위를 둘러싼 당혹감은 Leary와 Kowalski (1995)의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 이론과 Goffman(1959)의 '연극학적 상호작용(dramaturgical interaction)' 이론에 의해 그 발생기전과 이의 예방을 위한 전략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콘돔사용을 둘러싼 성 파트너와의 협상이나 콘돔구매 등의 잠정적인 성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성역할의 기대가 모호하거나 불평등한 경우, 성파트너나 자신의 콘돔행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부적절한 사회적 인상관리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당혹감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대상자의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게 되며, 그 결과 추후 지속적인 콘돔사용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콘돔사용이 성전파성 질환과 불임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성건강증진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콘돔이 유일한 남성 주도의 피임법이지만, 성파트너의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특수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상자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정착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Kim, 2001; Lee, Kim, & Kang, 2002; Shin, Chun, Cho, & Cho, 2005)을 분석해 보면,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일뿐만 아니라, 콘돔사용을 비롯한 성건강증진 행위를 대부분 전통적 건강신념모델과 합리적 행위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여왔다. 이들 모형은 건강행위의 의사결정자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기에, 대부분의 성교육이 개인의 인지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단편적인 성건강 지식의 전달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성관계시 성파트너와의 콘돔사용에 관한 협상이나 콘돔구매 시 타인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초래되는 당혹감 등의 사회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분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청년층을 위한 성교육의 목표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Aggleton & Warwick, 2002; DiClemente, 2001). 즉, 청년층 성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관련 지식의 습득, 성건강증진을 위한 가치관, 태도, 도덕의 수용 및 성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능숙한 기술의 함양을 목표로, 학교 중심의 성교육을 사회적 영향 그룹이나 사회기관 등 지역사회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때 동료의식, 참여, 명확한 가치관, 성교육자에 대한 지원, 정치 경제적 지원체계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료그룹 교육(Norr, Norr, & McElmurry, 2004), 지역사회-중심 성교육 및 성건강서비스 프로그램(Lou, Wang, Shen, & Gao, 2004) 등 지역사회 수준에서 대상자의 콘돔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 예방을 위한 연극학적 상호작용론(Goffman, 1959; Henslin & Biggs, 1971)에 근거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후, 남녀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이들의 콘돔에 대한 태도 및 콘돔사용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연극학적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성교육이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교육 전·후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다.
- 2) 성교육 전·후 남녀 대학생의 콘돔사용의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건강교육 후 남녀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 의향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D 광역시 소재 일 종합대학교에서 2003년 2학기 공통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건강증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중 사전 사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학생 71명, 남학생 23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자가 성교육 프로그램 첫 주, 강의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에 직접 배부하여 기입하도록 하였고, 5주 동안의 교육이 끝난 일주일 후에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재조사하였다.

3. 실험중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콘돔사용시 성 파트너와의 협상, 콘돔 구매, 사회적 인상관리, 성역할 수행 등 콘돔사용을 둘러싼 친밀한 상호작용상황에서 예상되는 당혹감 등의 지속적인 콘돔사용의 사회 심리적 장애요인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제공하여 대학생의 성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Henslin과 Biggs(1971)의 “여성의 질 검진에서 이루어지는 연극학적 탈성화 과정” 모형에 기초하여, 2002년 “가족건강관리”를 계절학기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한 남녀 대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콘돔사용 시 성 파트너와의 협상 및 콘돔 구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혹감 경험의 수준과 이의 예방에 효과적인 연극학적 상호작용의 방어적, 보호적 전략을 소그룹별로 시나리오로 작성하게 하였다. Aggleton과 Warwick(2002)이 청소년 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드라마 공연 등의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을 제안한 것에 근거하여, 소그룹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역할극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역할극 공연 후, 콘돔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한 결과 교육전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본 중재에 적용하여, 첫째 주에는 “우리의 성(sex, gender, sexuality) 바로알기!” 라는 제목으로 성관계시 콘돔사용 제안은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바람직한 성역할로 인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성생리, 성심리, 성사회학 등 성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power point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성관계시 지속적인 콘돔사용을 위한 성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나 콘돔구매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당혹감에 대해 혼성 소그룹 토론 형식으로 개인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둘째 주에는 “콘돔에 대해 바로알기!” 라는 제목으로, 각종 성전파성 질환의 원인, 전파경로, 증상 및 예방법, 그리고 불원임신의 예방법에 대해 실제 증상을 담은 slide 및 비디오를 사용한 강의를 있었다. 특히, 낙태의 현황과 시술과정 및 낙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담은 교육용 비디오를 상영한 다음, 소그룹 토론을 통해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콘돔사용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셋째 주에는 “콘돔이 어때서!” 라는 제목으로, 콘돔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에 대해 소그룹으로 토론한 다음,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넷째 주에는 “센스 있게 콘돔을 사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자들은 수업 전 과제로 다양한 종류의 콘돔을 실제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당혹감을 그룹별로 토론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 대상자들은 그룹별로 당혹감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인상관리 전략들을 “센스 있게 콘돔 사는 법!” 이라는 제목의 가상적 시나리오로 작성한 다음,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극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주에는 “콘돔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먼저 연구자의 올바른 콘돔 사용법에 대한 시범이 있었으며, 이어 소그룹별로 각자가 준비해온 콘돔 및 남성 생식기 대체물을 이용하여 콘돔사용법 실습이 진행되었다. 특히 혼성 소그룹 토론에 의한 콘돔사용법 실습시 성적 친밀감 유발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당혹감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자 전원 모두 의상을 상의는 흰색, 하의는 청바지로, 연구자는 실습실 가운을 착용하여 성적상황이 아닌 실습상황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콘돔사용법 실습 경험을 토대로 가상 혹은 실제 콘돔사용의 제안 상황에서 발생한 당혹감 경

험에 대하여 그룹별 토론시간이 있었다. 토의에서 도출된 당혹감 예방을 위한 인상관리 전략들을 기초로 “콘돔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라는 제목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그룹별로 작성한 다음, 각 그룹이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역할극을 수행하였다. 특히 역할극을 통해 성적 쾌감 저하, 질점막 자극, 부적절한 콘돔 크기 등 콘돔착용에 따른 불편감의 예방을 위한 각 성적 파트너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매주 2회, 총 15시간으로 구성되어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진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역할극 공연시 대상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그룹별 자가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그룹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각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4. 측정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헌 고찰에서 본 연구의 변수인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나이, 학년, 성교육 수강 경험, 성 경험과 과거 콘돔사용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6문항의 반구조화·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성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건강 정보추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의 성건강 관련 정보출처를 반 구조화된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자신의 평소 성건강 관련 정보출처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자료 분석시 각 정보출처는 정보추구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TV,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정보홍보물'은 비대면적 정보추구 유형으로, '친구, 학교, 의료인, 병원, 보건소, 부모님'은 대면적 정보추구 유형,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혼합형 정보추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콘돔사용의 영향요인으로 대상자의 당혹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상황적 당혹성향 측정 도구는 Modigliani (1968)의 당혹성향 척도(Embarrassability Scale, ES)를 Cho와 Chung(200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의 대면상황에 대해 '전혀 당혹스럽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당혹스럽다' 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면 상황에서 당혹

<Table 1> Summary of the Intervention Program

Session	Theme	Contents	Methods	Intended outcomes of program
1	"Knowing to sex, gender, sex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of the program • Pre-test • Overviewing sex, gender, sexuality • Sharing peer 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turing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eeing that interpersonal aspects is a crucial influencing factor on sexual health behaviour among young adult
2	"Knowing to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ondom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Unwanted pregnancy • Cervical can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turing • Video • Sl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eeing that the constant use of condom is a reliable and an effective method of safe sex
3	"Overcoming stigma attached to condom u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itive halo and stigma attached to condom u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ication and modification of negative stigma attached to condom user
4	"Overcoming embarrassment about the purchase of cond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chasing a condom and sharing experience • Writing a scenario • Summary of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turing • Small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 Role 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ying a script of the purchase of condoms • Acquiring the skills being useful managing social impression during condom purchase social interactions
5	"Overcoming embarrassment about negotiations and use of cond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ring experience of negotiations and use of condoms • Writing a scenario • Post-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turing • Condom use demonstration and practice • Small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 Role 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ying gender roles according to a script of negotiations and use of condoms • Adopting gender roles shaping appropriate condom use interactions

감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Cho와 Chung(2002)의 연구에서는 각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로 나타났다. 기질적 당혹성향 측정 도구는 Kelly와 Jones(1997)의 당혹민감성 척도(Susceptibility to Embarrassment Scale, SES)를 Cho와 Chung(200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상호작용의 불쾌한 측면을 반영하는 총 25문항의 성격-기초 진술에 대해 '전혀 나와 같지 않다' 1점에서 '내가 정말 그렇다' 7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분석 전 부정적 어휘를 사용한 3개의 문항은 역으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적으로 당혹감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이었으며, Cho와 Chung (2002)의 연구에서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로 나타났다.

2) 콘돔에 대한 태도

Helweg-Larsen과 Collins(1994)가 개발한 자가보고형 질문지 UCLA MCAS(Multidimensional Condom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사용을 위해 연구자가 먼저 우리말로 번역한 다음, 영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교수에 의해 역번역이 이루어졌고, 다시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도구를 일 종합대학 대학생 1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지 문항의 이해와 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개의 하부영역으로 콘돔의 신뢰성 및 효과성,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하부영역별 5문항씩 총 25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7점 척도(1: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7: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이 도구의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남 여 모두 Cronbach's alpha=.74~.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여 모두 Cronbach's alpha=.69~.90으로 나타났다.

3) 콘돔사용의향

Helweg-Larsen과 Collins(1994)가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시 개인의 콘돔사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5개 문항(거부, 고집, 제안, 저지, 사양)의 7점 척도(1: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7: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였으며, 콘돔 사용의 거부, 저지, 사양 문항 점수를 역코딩 한 후, 각 문항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콘돔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8.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성교육 전·후 대상자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의향의 변화정도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분포는 여학생의 경우 19세 이하가 77.5%, 남학생은 23세 이상이 56.6%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다. 성건강 교육 수강 경험은 여학생이 85.9%, 남학생은 78.3%이었고, 콘돔사용법 실습 경험의 기회는 여학생이 7.0%, 남학생은 4.4%로 낮게 나타났다. 성건강 정보추구 유형은 여학생의 64.8%, 남학생의 60.9%가 혼합형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면형은 여학생이 21.1%, 남학생은 39.1%를 차지하였다. 성경험에 대하여 여학생의 80.3%가 아직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60.9%가 유경험자였다. 성경험자중 과거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경험은 남녀 대학생 모두 78.6%로 나타났다. 성별 당혹성향으로 기질적 당혹성향은 여학생 평균 80.7점, 남학생 74.3점이었으며, 상황적 당혹성향은 여대생 평균 103.4점, 남학생 평균 95.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성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Table 3>은 본 연구 대상자에게 연극학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를 나타낸다. 여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는 하부영역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교육 전 평균 5.2점이었으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Total(N=94)	Female(n=71)	Male(n=23)
	n(%)	n(%)	n(%)
Age			
≤19	61(64.9)	55(77.5)	6(26.1)
20~22	20(21.3)	16(22.5)	4(17.3)
≥23	13(13.8)	0(0.0)	13(56.6)
Grade			
1st	39(41.5)	33(46.5)	6(26.1)
2nd	24(25.5)	18(25.4)	6(26.1)
3rd	20(21.3)	15(21.1)	5(21.7)
4th	11(11.7)	5(7.0)	6(26.1)
Sex education			
Yes	79(84.0)	61(85.9)	18(78.3)
No	15(16.0)	10(14.1)	5(21.7)
Condom practice			
Yes	6(6.4)	5(7.0)	1(4.4)
No	88(93.6)	66(93.0)	22(95.6)
Information seeking styles for sexual health			
Face to face only	24(25.5)	15(21.1)	9(39.1)
Non face to face only	10(10.6)	10(14.1)	0(0.0)
Either	60(63.8)	46(64.8)	14(60.9)
Ever engaged in intercourse			
Yes	28(29.8)	14(19.7)	14(60.9)
No	66(70.2)	57(80.3)	9(39.1)
Past condom use			
Yes	22(78.6)	11(78.6)	11(78.6)
No	6(21.4)	3(21.4)	3(21.4)
Embarrassability	Range	Mean±SD	Mean±SD
Dispositional(ES)	25-175	80.7(12.7)	74.3(10.5)
Situational(SES)	26-130	103.4(22.9)	95.9(24.3)

<Table 3> Condom Attitudes after Sex Health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t	p
	Mean	SD	Mean	SD		
Female(n=71)						
1.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5.2	0.8	5.7	0.7	4.08	.0001
2. Pleasure	4.4	0.6	4.4	0.7	-0.62	.5385
3. Identity stigma	5.7	0.7	5.7	0.7	-0.56	.5762
4. Embarrassment about negotiation and use	3.9	1.2	4.2	1.1	2.06	.0431
5. Embarrassment about purchase	3.1	0.9	3.3	1.0	1.77	.0805
Male(n=23)						
1.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5.6	0.8	5.8	0.5	1.09	.2895
2. Pleasure	4.2	0.9	4.3	0.9	0.81	.4293
3. Identity stigma	5.7	0.7	5.7	0.7	0.21	.8354
4. Embarrassment about negotiation and use	4.7	1.1	4.7	1.1	0.18	.8589
5. Embarrassment about purchase	3.4	1.4	3.6	0.9	0.74	.4696

나, 교육 후에는 평균 5.7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4.08, p=.0001$).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평가는 교육 전, 후 각각 평균 4.4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전,

후 각각 평균 5.7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전 평균 3.9점에서 교육 후 평균 4.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2.06, p=.0431$).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Table 4) The Intention to Use a Condom after Sex Health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t	p
	Mean	SD	Mean	SD		
Female(n=71)	5.9	0.9	5.8	0.8	-0.97	.3355
Male(n=23)	5.5	1.0	5.7	0.7	0.69	.4987

대한 태도는 교육 전 평균 3.1점에서 교육 후 평균 3.3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는 하부영역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교육 전 평균 5.2점에서 교육 후 평균 5.7점으로,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은 교육 전 평균 4.2점에서 교육 후 평균 4.3점으로,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은 교육 전, 후 각각 평균 5.7점으로,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은 교육 전, 후 각각 평균 4.7점으로,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전 평균 3.4점에서 교육 후 평균 3.6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남학생의 콘돔사용의향은 평균 5.9점에서 평균 5.8점으로, 여학생은 평균 5.5점에서 평균 5.7점으로 변화가 있었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연극학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성생활을 시작한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도된 최초의 간호중재이다. 이는 성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이나 의향의 선행요인으로 성건강증진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전통적 이론과 상반된 것이다. 즉, 성 파트너와의 콘돔사용에 관한 협상이나 콘돔구매 시 타인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초래되는 당혹감 등의 사회심리적 장애요인 발생의 예방에 효과적인 연극학적 상호작용술의 습득이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콘돔사용의 실천의지를 초래한다는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콘돔사용 관련 특성으로 성 경험률은 여학생이 19.7%로 남학생의 60.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Seo와 Lee(1999)가 미혼 여대생의 성 경험률을 4.3%로, Park과 Han(2000)이 남자 대학생의 성 경험률을 41.1%로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성 경험자의 78.6%가 지난 일년 동안 성관계시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Kang(2001)이 성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지난 1년간 콘돔사용 경험률이 여대생 73%, 남학생 80%로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급격한 정보매체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윤리관의 혼돈과 갈등이 초래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콘돔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결과, 중재 전 여대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는, Helweg-Larsen과 Collins(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 영역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문화권의 여성보다 개인행동에 있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교문화권 영향에 있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중재 전 남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 점수를 Helweg-Larsen과 Collins(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본 연구 남학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국내 남자 대학생의 성의식 수준이 개방된 성문화의 서구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5주 동안의 중재를 수행한 결과, 여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 중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t=4.08, p=.0001)과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t=2.06, p=.0431)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 등에는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또한 남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에 미친 효과는 5개 하부영역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시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 파트

너 모두,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콘돔사용의 협상 상황을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로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교육 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power point, OHP, Video, 그룹 활동을 통한 콘돔사용과 관련된 성생리, 성심리, 성 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습득과 콘돔 구입 및 사용법에 관한 체험이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극학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성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Lou 등(2004)이 미혼 남녀 성년의 피임 및 콘돔사용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성교육의 일환으로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및 콘돔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장하기 위해 성건강 관련 교육자료 배포, video 사영, 강의 및 그룹활동 시 성적 의사소통과 협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의 피임 및 콘돔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전통적 유교문화권에서 성적인 상호작용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여대생의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은, 본 중재의 효과가 최근 양성평등 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성교육의 목표와 일치됨을 증명하는 결과이기도하다.

콘돔은 성전파성 질환과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남성 주도의 피임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콘돔행위가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역할과 불일치하는 경우 효과적인 콘돔사용의 장애요인이 된다(Helweg-Larsen & Collins, 1994). 더욱이 콘돔사용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성역할은 사회 문화적, 개인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콘돔행위의 특성상 만일 성관계시 콘돔사용 제안, 협상 및 사용에 대한 염려에 기인하는 당혹감 등의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고, 그 결과 콘돔사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지속적인 콘돔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여학생의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그룹 활동으로 콘돔사용에 관한 협상 시 바람직한 인상관리 욕구에서 발생하는 당혹감 등의 정서적 불편감

예방을 위한 방어적, 보호적 인상관리를 “콘돔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라는 제목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감정적 콘돔 현상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수행한 것이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것은 Aggleton과 Warwick(2002)이 청소년 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드라마 공연 등의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은 동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변화에 유익하다고 제안한 것이나, Halpern-Felsher, Kropp, Boyer, Tschann과 Ellen(2004), 그리고 Strader, Beaman과 McSweeney(1992)이 청소년의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혹은 신념, 의향은 성 파트너, 부모와 동료 등 타인과의 성 및 피임에 관한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교육 후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평가는 남여 대학생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콘돔사용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경험자로서 과거 콘돔사용 경험이 있었으며,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에 대해 교육전 이미 평균 4.2점(평균 7점 만점)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과거 콘돔 사용 경험자일수록,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Cho, 2004)를 고려할 때, 본 교육에 의해 그 이상으로 변화되기 보다는 성 파트너의 반응에 의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교육전, 이미 평균 4.4점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 이외에도, 대다수가 성교육 수강자이며, 아직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본 교육을 통해 성관계시 콘돔사용에의 의지 보다는 금욕이라는 일차적 성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으로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교육에 의한 콘돔태도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 전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평가는 남여 대학생 모두 평균 5.7점(평균 7점 만점)으로, 5개의 하부영역 점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방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중재 후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높게 측정된 상황적 당혹

성향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당혹감은 콘돔 구매 등 성 건강 행위의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Dahl et al. 1998), 이러한 당혹감은 개인의 당혹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ho & Chung, 2002). 당혹성향은 한 개인의 인상관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호작용 상황이나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의한 당혹감에 대한 일반적인 민감성(Modigliani, 1968)이다. 따라서 당혹성향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콘돔사용 시 성파트너와의 협상이나 콘돔구매 시 콘돔사용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편견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체성 손상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상 콘돔사용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포함하는 중재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콘돔사용 행위의 사회적 요인과 당혹성향 등 개인의 기질적 요인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중재 후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는 남녀 대학생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콘돔 유통경로를 통해 콘돔을 직접 구매하도록 지시했을 때 대다수가 약국에서 콘돔을 구입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콘돔 구입이 거의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콘돔 구입시 당혹감이 흔히 유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의 콘돔구매 행위에 대한 콘돔 판매자의 반응이 사전에 계획된 상호작용의 시나리오에 따라 통제 되었다면 콘돔 구매시 발생한 당혹감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콘돔구매시 당혹감 등의 정서적 불편감은 성별, 성경험, 성행위시 피임도구 사용여부 등 대상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otsonen & Kontula, 1999)에 기초할 때, 개인적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본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Park과 Han(2003)이 콘돔 구입시 어색한 구매행동에 의한 콘돔사용 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밴딩머신, 우편주문 등 비대면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콘돔 유통체계의 검토를 제안한 것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콘돔 유통경로에 따른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중재 전 콘돔사용의향은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후 남녀 대상자의 콘돔사용의향에는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교육 전 대상자의 콘돔사용의향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은 대다수가 평소 성건강 정보를 대면형 혹은 혼합형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며, 교육 전 이미 콘돔에 대한 태도의 5개의 하부요인 중 콘돔의 신뢰성 및 효과성, 콘돔 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평가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런 결과는 Cho(2004)가 여학생의 콘돔사용 의향은 콘돔의 신뢰성 및 효과성, 콘돔 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태도, 평소 성건강 정보를 대면형 혹은 혼합형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는 것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콘돔구매시의 당혹감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콘돔 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및 콘돔구매시 당혹감에 대한 태도가 유력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Campbell 등(1992)도 여대생의 향후 새로운 성파트너와의 콘돔 사용 의향은 콘돔사용시 성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측면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예측된다고 보고하였으며, Helweg-Larsen과 Collins(1994)도 여대생의 콘돔 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으며, 콘돔사용 의향과 낮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남학생 대다수가 성경험과 함께 콘돔사용 경험이 있으며, 평소 성건강 정보를 대면형 혹은 혼합형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고, 기질적 당혹성향이 중간이하로 낮은 편이었으며, 교육 전에 콘돔에 대한 태도의 5개의 하부요인 중 콘돔구매와 관련된 당혹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 있어서 이미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의 콘돔사용 의향에 대해 Cho(2004)가 콘돔사용의 성적 쾌락, 기질적 당혹성향 및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Campbell 등(1992)이 콘돔사용의 상호작용 측면에 대한 태도를, Park과 Han(2000)이 남자 대학생의 콘돔의 선호도를 콘돔사용 경험, 콘돔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높은 지식점수, 콘돔에 대한 정보 접촉기회를 유력한 설명요인으로 예측한 것과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 남녀 대학생의 콘돔사용의향이 본 연구의 중재에 의해 그 이상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성 파트너의 반응에 의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연극학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성건강증진 교육이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정한 것으로, 본 중재가 특히 여대생의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여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관계시 지속적인 콘돔사용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를 포함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극학적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성교육이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성적으로 활발한 대학생의 성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를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해 수행된 유사 실험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D 광역시 소재 일 종합대학교에서 2003년 2학기 공통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건강증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남녀 대학생 중 사전 사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학생 71명과 남학생 2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콘돔사용을 둘러싼 친밀한 상호작용상황에서 예상되는 당혹감 등의 지속적인 콘돔사용의 사회 심리적 장애요인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5주간 총 10회, 15시간의 강의 및 그룹토의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성건강교육 전, 후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대상자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의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me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연극학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성교육을 받은 여대생은 콘돔에 대한 태도에 관한 5개의 하부영역 중 “콘돔의 신뢰성과 효과성”(t=4.08, p=.0001)과 “콘돔 협상 및 사용과 관련된 당혹감”(t=2.06, p=.0431)에 대해서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콘돔사용의 성적 즐거움”, “콘돔사용자의 정체성 손상”, “콘돔 구매와 관련된 당혹감” 등에 관한 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교육 후 남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는 5개의 하부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교육 후 대상자의 콘돔사용의향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상에서 콘돔사용을 둘러싼 친밀한 상호작용에서 발

생하는 당혹감 등의 사회 심리적 장애요인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술의 학습을 목표로 한 성교육이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 등 일차적 성건강 증진을 위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대조군을 두지 못하여 연구의 효과가 실험 처치의 결과임을 추론하기에 부적절하며, 교육 후 사후조사가 시차 없이 이루어져 실험처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본다.
2.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의한 연구로 5주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제3변수의 개입이나 성숙이 아닌 순수한 중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통제군 전후설계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콘돔사용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 콘돔 협상 및 구매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상황적 특성, 지역사회 내에서 콘돔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개선 등을 고려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ggleton, P., & Warwick, I. (2002). Education and HIV/AIDS prevention among young people. *AIDS Educ Prev*, 14(3), 263-267.
- Brown, I. (1984).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attitude toward the condom as a method of birth control. *J Sex Res*, 20(3), 255-263.
- Campbell, S. M., Peplau, L. A., Debro, S. C. (1992). Women, men, and condoms. *Psychol Women Q* 16, 273-288.
- Cho, E. J. (2004). A study on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condom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d influencing factors. *J Kyungpook Nurs Sci*, 8(2), 39-53.
- Cho, E. J., & Chung, B. Y. (2002). Embarrassment: A concept analysis. *J Korean Acad Adult Nurs*, 14(2), 276-286.
- Dahl, D. W., Gorn, G. J., & Weinberg, C. B. (1998). The impact of embarrassment on

- condom purchase behaviour. *Can J Public Health*, 89(6), 368-370.
- DiClemente, R. J. (2001). Development of programmes for enhancing sexual health. *The Lancet*, 358, 1828- 1829.
- Emerson, J. (1970). Behavior in private places: Sustaining definitions of reality in gynecological examinations, In H. P. Dreitzel (Eds.). *Recent Sociology* 2, 74-97. New York: Macmillan.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Halpern-Felsher, B. L., Kropp, R. Y., Boyer, C. B., Tschann, J. M., & Ellen, J. M. (2004). Adolescents' self-efficacy to communicate about sex: Its role in condom attitudes, commitment, and use. *Adolescence*, 39(155), 443-456.
- Helweg-Larsen, M., & Collins, B. E. (1994). The UCLA multidimensional condom attitudes scale: Documenting the complex determinants of condom use in college students. *Health Psychol*, 13(3), 224-237.
- Henslin, J., & Biggs, M. (1971). Dramaturgical desexualization: The sociology of the vaginal examination, In Henslin, J.(Ed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Sex*(pp.243-272), Appleton Century Crofts, New York.
- Kim, K. S. (2001). Development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sexual awareness. *Korean Assoc Fam Relat*, 6(1), 181-201.
- Kang, H. S. (2001). *An explanatory model of condom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Yonsei University, Seoul.
- Kelly K. M., & Jones, W. H. (1997). Assessment of dispositional embarrassability. *Anxiety, Stress, and Coping* 10, 307-333.
- Kiragu, K. (2001). Youth and HIV/AIDS: Can we avoid catastrophe. *Popul Rep*, 12, 1-39.
- 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6). Incidence of AIDS in Korea. *Red Ribbon*, 1/2. Retrieved Jan 18, 2006, from <http://www.aids.or.kr>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Self presentational disasters*.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K. E., Kim, H. B., & Kang, D. W. (2002). The effects of sexuality course on sex-role stereotypes and the subjective reaction for sexuality course in university students-multidimensional approach. *Kwandong Med J*, 6(1), 63-77.
- Lou, C. H., Wang, B., Shen, Y., & Gao, E. S. (2004). Effects of a community-based sex educ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 program on contraceptive use of unmarried youths in Shanghai. *J Adolesc Health*, 34, 433-440.
- Modigliani, A. (1968) Embarrassment and embarrassability. *Sociometry*, 31, 313-326.
- Norr, K. F., Norr, J. L., & McElmurry, B. J. (2004). Impact of peer group education on HIV prevention among women in Botswana. *Health Care Women Int*, 25, 210-226.
- Park, S. H., & Han, J. H. (2000).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eference to use condoms in mal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Stat*, 25(1), 59-66.
- Park, S. H., & Han, J. H. (2003). Status of condom use in unmarried male. *J Reprod Med Popul*, 16, 52-56.
- Park, S. H., Lim, D. O., & Han, J. H. (2003).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toward condom use in male college students. *J Reprod Med Popul*, 16, 57-62.
- Potsonen, R. & Kontula, O. (1999) How are attitudes towards condoms related to gender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in Finland? *Health Promot Int* 14(3), 211-703.
- Seo, J. S., & Lee, H. K. (1999). Sexual behavior, attitude, and knowledge of unmarried female students of a college. *Inje Med J*, 20(1), 149-161.
- Strader, M. K., Beaman, M. L., & McSweeney,

- M. (1992).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important social referents on beliefs and intentions to use condom. *J Adv Nurs*, 17, 699-703.
- Svenson, G. R., Ostergren, P., Merlo, J., & Rastam, L. (2002). Action control and situational risks in the prevention of HIV and STIs: Individual, dyadic, and social influences on consistent condom use in a university population. *AIDS Educ Prev*, 14(6), 515-531.
- Shin, Y. H., Chun, Y. K., Cho, S. M., & Cho, Y. R. (2005). The effects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5(7), 1304-1313.

- Abstract -

Effects of Sex Education on Condom Attitudes and Condom Use Inten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 Dramaturgical interaction approach -

*Cho, Eun Ju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exual health education guided by dramaturgical interaction on condom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a condom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 Seventy-one female and 23 male volunteers at a university

in D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with an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intervention was implemented for five weeks in October 2003 with a short course including group works to encourage university students' social skills in condom use negotiations and condom purchase by using a dramaturgical interaction model. A confidential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at baseline and post-intervention, and changes in condom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a condom were measured. **Result:** The self-report of femal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two out of the five condom attitudes domains, such as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p < .001$) embarrassment about negotiation and use ($p < .05$), while male subjects showed no change in each of the condom attitudes domain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intention to use a condom after the intervention. **Conclusion:** Sexual health education planned to encourage social skills in condom use by using the dramaturgical interaction model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dom attitudes. A more rigorously designed trial is need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sexual health promotion programme that targets both cognitive and behavioral changes among sexually active young adults within community.

Key words : Sex education, Condom attitudes, University students

*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orabol College